

# WBC에 모바일 야구게임도 ‘들썩’ 컴투스, 스포츠 이벤트 효과 노린다

KBO 리그 기반 ‘컴투스프로야구’  
글로벌 겨냥 ‘MLB 9이닝’ 흥행  
야구 시즌 때마다 상승흐름 반복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열기가 커지면서 모바일 야구 게임 시장도 동시에 들썩인다. 특히 국내 대표 야구 게임 라인업을 보유한 컴투스가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WBC를 중심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야구 게임 이용자 유입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스포츠 이벤트가 실제 스포츠 게임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컴투스는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야구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게임사다. 대표작인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는 KBO 리그 기반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20년 가까이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MLB 9이닝’ 시리즈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컴투스의 핵심 스포츠 게임 IP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야구 국제 대회나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프로야구 개막 시즌이나 국제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신규 이용자 유입과 복귀 이용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WBC가 이러한 흐름을



컴투스프로야구2026 공식 이미지.

/컴투스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가대표 경기와 선수 활약이 화제가 되면서 야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게임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스포츠 게임은 실제 경기와의 연동 효과가 강한 장르다. 특정 선수의 활약이나 대표팀 성적이 화제가 되면 해당 선수 카드나 팀을 활용한 플레이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난다.

컴투스 역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꾸준히 경험해 왔다.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는 실제 KBO 리그 개막 시즌에 맞춰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활동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글로벌 게임인 ‘MLB 9이닝’ 역시 메이저리그 시즌과 맞물려 이용자 유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게임업계에서는 스포츠 이벤트가 계

임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구처럼 시즌제 스포츠는 실제 경기와 게임 이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제 대회나 리그 시즌이 시작되면 스포츠 게임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야구는 실제 경기와 게임 플레이의 연결성이 높은 장르라 이벤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WBC와 프로야구 개막 시즌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야구 게임 시장의 이용자 활동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스포츠 이벤트가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연쇄 효과’가 다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 카카오TV 서비스 종료... 숏폼 콘텐츠 강화

플랫폼 구조 재편 신호

카카오가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TV 서비스를 종료하며 콘텐츠 전략을 재편한다.

카카오는 8일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TV 서비스를 종료하고 숏폼 콘텐츠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V는 2015년 다음TV팟을 기반으로 출범한 플랫폼이다. 라이브 방송과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카카오의 영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

게 변하면서 플랫폼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틱톡과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중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콘텐츠 전략을 재정비한다. 긴 영상 중심 플랫폼 대신 숏폼 콘텐츠와 창작자 생태계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TV 종료를 플랫폼 구조 재편의 신호로 해석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숫자를 늘리는 전략보다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빛나 기자

## ‘붉은사막’ 플랫폼 정보공개 요구 커져

필어비스, 7년 개발한 차기 대작  
콘솔 플랫폼 성공여부 흥행 영향

필어비스 차기 대작 ‘붉은사막’에 대한 이용자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필어비스가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을 둘러싼 이용자 관심이 확대된다.

붉은사막은 필어비스가 약 7년 동안 개발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광대한 오픈월드와 높은 그래픽 완성도를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적으로 꼽힌다.

게임은 광대한 파이널 대륙을 배경으로 전투와 탐험, 스토리 중심 플레이를

결합한 구조를 갖는다. 필어비스 자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액션 연출이 특징이다.

최근 공개된 영상과 정보 이후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플랫폼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진다. 특히 콘솔 버전 세부 정보와 플랫폼 지원 범위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콘솔 시장 공략 여부는 글로벌 게임 시장 전략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콘솔 플랫폼에서 성공 여부가 글로벌 흥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붉은사막이 필어비스의 차세대 핵심 IP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빛나 기자

## KT, AI 인재양성 ‘에이블스쿨’ 수료식

300명 교육생 실무교육 받아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8기 수료식을 열고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30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컨설팅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았다.

8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84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 기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 ‘에이블 에듀’를 활용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교육이 진행됐다.

에이블스쿨은 2022년 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들이 국내외 약 500개 기업에 취업했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소



KT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엠베서 더서울에서 교육생과 ICT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박람회 모습. /KT

피텔 엠베서 더서울에서 수료생 대상 취업박람회를 열고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KT를 비롯해 BC카드, KT클라우드, KT CS, KT텔레캅, KT알파 등 그룹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했다. /김서현 기자

## LG U+, 외부노출 없는 일체형 AI 개발 박차

MWC26서 퓨리오사 AI와 ‘맞손’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 나서  
AI 플랫폼·엑사원·NPU 통합

LG유플러스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퓨리오사AI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현장에서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참석했다.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는 기업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내부 인프라(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처리되는 일체형 AI 장비다. 별도의 복잡한 서버 구축 없이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장비에는 LG유플러스의 기업용 AI 플랫폼과 LG AI연구원의 AI 모델 ‘엑사원(EXAONE)’,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통합된다.

LG유플러스는 기업용 AI 플랫폼과 엑사원 4.0을 기반으로 사내 문서 검색



LG유플러스가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기업 내부에서 안전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개발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우·왼쪽)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MWC26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과 요약, 업무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폐쇄망 환경에서도 문서 검색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퓨리오사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엑사원 4.0의 추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담당한다.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산 구

조를 최적화하고 전력 효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공공·국방·의료·금융·제조·연구기관 등 외부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현장에서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AIDC 기반 NPUaaS(서비스형 NPU)와 피지컬 AI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AIDC 분야에서는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설계와 운영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로봇이나 설비 제어가 필요한 현장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추론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모델과 플랫폼, 반도체 기술을 하나의 구조로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능뿐 아니라 보안과 운영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